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7월 30일(금) (음력 6월 21일) Пятница 30 июля 2021г. № 29 (1194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미슈스틴 총리, 사할린 방문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극동지역 출장으로 사할린주 방문부터 시작했다. 그는 26일 우선 이투루프섬을 찾아 생선가공공장, 쿠릴스크 구역 중앙병원 등을 돌아보았다.

2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어진 출장 일정(총리는 새 주택단지, 공사 중인 공항터미널 시찰, 극동지역 지도자들과의 회의, 사할린 주지사와의 면담 등)으로는 총리의 일정은 바빴다. 이 방문에 미슈스틴 총리와 극동지역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알레리 리마렌도 사할린주지사가 동행했다.

▲ 극동지역 지도자와 비상사태에 관한 회의에서.

(사진: 주정부 제공)

### 사할린 주지사와 러시아 총리 만남

사할린주가 기술적 제반설비와 도로 건설을 위해 120억 루블리에 달하는 예산을 대출받아 이것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구역 건설을 위한 제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 정부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러시아 연방 정부 대통령의 위임으로 사할린이 3% - 4% 이하의 우대금리에 따른 대출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사할린주는 이러한 예산 자금이 배당되는 시범 행정자치지역이다."라고 러시아 총리가 밝혔다.

사할린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30만m<sup>2</sup>와 50만m<sup>2</sup>의 대규모 새로운 구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첫째로 '우윤'이 이력 파이썬러 러시아 건설부 장관의 참여로 착수되었다.

"예산 대출을 통해 도로 건설, 전기와 수도 설비 및 기술적 제반설비를 계획하고 있다.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새로운 소구역의 제반시설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때에 적절한 결정을 해준 정부

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표명했다. 회담 중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의료개발이었다.

"우리에게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은 우선 사항이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검진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10만 9천 명이 검진을 받았다. 심층적 의료 검진을 위한 새로운 의료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위험군에 속하는 그룹 중 65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들은 특별 관심 계층이다. 사할린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질병을 방지하지 않고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검진을 해야 한다."라고 주지사가 밝혔다.

의료적 도움의 신속한 조치는 종합 이동진료차량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할린주에는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진료차량 40대가 외딴 마을까지 찾아가고 있다. 사할린의 지방 마을에서 의료진의 이동을 위해 11대의 새로운 차량이 보급되었다. 또한 17대의 구급차와 3대의 이동진료 차량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 러시아 건설부 장관, 주택 건설 속도 높이 평가

지난 26일 이력 파이썬러 러시아 연방 주택공공경리 및 건설부 장관이 사할린주를 방문했다. 그는 여러 건설 대상들을 방문하고, 주 정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열었다.

확대회의에는 사할린주 부수장 세르게이 올론체브, 사할린주 건설부 장관 알렉세이 콜레와티흐, 사할린주 주택공공경리부 장관 나탈리아 쿠프리나, 사할린주 도시건설 및 건축부 장관 알렉세이 라키츠키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사할린주의 대형 건설사 대표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제안을 설명했다.

이력 파이썬러 장관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2017년 1월1일까지 확인된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이 종료된 국내 2개 지역 중 한 곳으로서 이러한 것은 사할린의 높은 건설 속도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사할린에서 계획에 따라 매년 50만m<sup>2</sup>가 운용될 전망이며, 사할린주는 주택 건설량 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구조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연방 주택분야 개발 금융연구소와 50만m<sup>2</sup>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의사, 교사, 기타 전문가들 800여 명이 자신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단신

#### 러시아 보건부 장관, 사할린 의료시설 점검

러시아 연방 보건부 장관 미하일 무라쉬코가 출장차 사할린주를 방문해 의료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점검하는 가운데 주 병원과 주 아동병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4호 보건소를 방문했다. 방문에 블라디미르 유슈코 주 정부 부수장과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주 보건부 장관이 동행했다.

미하일 무라쉬코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역 보건 체계의 건설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백신화 작업을 수행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이투루프섬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 평가했다. 이투루프섬 주민들의 집단면역은 달성되었다.

지금까지 사할린 지역의 백신 접종자는 14만 명 이상이다.

#### 연금펀드, 8월 2일부터 아동을 위한 일시 보조금 지급 시작

러시아 연금재단에서는 8월 2일부터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일시 보조금 1만 루블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학령기 자녀에게 지급되는 일시보조금은 만 6세(9월1일 이전까지 (신학기 첫날) - 만 18세(7월3일 (아동 보조금 지급 제외 첫날)까지)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된다. 보조금은 부모나 양부모, 후견인, 아동 보호자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체계가 마련되어 자금이 들어왔다. 월요일에 1700만 명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안톤 코차코브 러시아 연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 장관이 말했다.

이전에 보조금 지급일은 8월 16일로 예정되었다가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사할린주 정부는 7월 28일 기준 코로나 상황을 발표했다.

확진자 1,753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913명이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7월 28일에 5명이 사망했고, 총 사망자는 121명이며, 187개의 입원 병상이 남아있다.

일일 확진자는 106명이고, 일일 백신 접종자는 1,103명으로 현재 총 144,723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 집단면역 달성률은 46.8%이다. 현재 백신은 2만4천810회분이 남아있으며 최근 6개월간 코로나19 완치자들 3만 명에게서 항체가 형성되었다.

사할린주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5만2천353명의 주민들이 백신을 맞아야 하고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주민 60%가 항체를 보유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 새고려신문

###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성장하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1982년생인 김 세르게이는 사할린 부동산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거의 14년간 <우프라블레니에 네드위지모스찌유(부동산 운영)>이란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했고 현재는 <플레트>회사 대표이사다.

세르게이는 돌린스크 출신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99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상업대학교(현 러시아 국립 무역경제대학교) 사할린 분교 법률학과에 입학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안 되어서 멀리 가서 공부할 수 없었다. 그가 공부하는 반에는 출중한 실력들을 가진 좋은 친구가 많았다. 김 세르게이 대표에 따르면 거의 절반은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90%이상은 전공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도 얻고 성공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르게이는 학업에 대한 의욕이 많은 사람으로서 대학 공부가 참 재미있었다고 한다. 대학은 기숙사 시설이 준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는 처음엔 소콜 출신의 사촌형들과 방을 임대하는 집에서 함께 지냈다. 형들이 대학들을 졸업하고 혼자 자취를 하다가 재정 형편이 안 좋아 매일 돌린스크에서 버스로 대학을 다녀야 했다. 돌린스크-유즈노사할린스크 구간은 약 44 킬로미터다. 매일 버스로 다니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세르게이의 하나뿐인 남동생마저 대학에 입학하자 들어서 매일 유즈노로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

웠다. 그때 세르게이의 부모님은 돌린스크에 있는 집을 팔고 아예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을 다니며 막노동도 했고 나중에 사할린으로 돌아와 택시 운전을 하였다. 어머니는 한평생을 재봉사로 일했다.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말씀이 곧 법이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무서워 했어요. 무서워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무서워 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무척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라고 김 세르게이가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지금도 그는 효도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세르게이는 처음에는 변호사로 취직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돈 벌이를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는 개인 사업으로 변호 업무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촌 형들의 친구들에게 변호사로 소개되었고 이들은 간단한 변호사의 일을 부탁했다. 상담, 계약 검토, 진행 등이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전문가로 인정되어 계속 소개가 되고 섭외가 되었다고 한다. 한때 선거 캠페인에 변호사로 유치되기도 했다. 그때 시행정부 전

문가로 스카우트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업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부탁이면 항상 돕고 있다.

성공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늘 명심하며 세르게이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세르게이는 집안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엔 그냥 발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변화시키고 발전하도록 최선을다해 앞으로 나가는 방법뿐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도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했다.

졸업하자마자 공식적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2006년 그는 청년 전문가들 4명과 함께 <부동산 운영>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변호사로 개인 활동을 시작할 때 알게 된 변호사 친구들이었다. 그때 각자 3500 루블리를 투자해서 회사를 차렸다. 한 친구는 얼마 안 되어 설립 회사에서 나가고 셋이 힘을 합쳐 일하게 되었다. 차츰 소비자도 유치하게 됐고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좋은 전문 상담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세르게이는 그 동안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회사 설립 시기의 그의 목적은 돈을 벌어 부모님을 뒷받침해드리고 앞으로 가족이 생기면 가족이 무리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요

목표였는데 그 뜻을 이루었다. 부동산 회사가 발전하여 이제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요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는 <부동산 운영>회사를 잘 설립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또한 일도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기쁨을 느껴야 한다. 예쁜 드레스나 보석을 살 때처럼 기뻐야 한다."고 말한다. 고객들에게는 집을 살 때 긴장을 많이 하고 그들만의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부동산 전문가 역할이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먼저 우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도울 때 매매 진행은 순조로워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13여 년 잘 나가는 회사를 이끌다가 그는 대표이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그 원인은 한 설립자가 육아 휴직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세르게이는 이 회사가 안전한 수입을 유지하는 회사로서 그저 제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설립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양보하고 이 회사의 지회사로 운영하는 <플레트> 회사를 작년엔 설립하고 자신이 새로운 사업도 해볼 생각이었다. <부동산 운영>회사 같은 경우 주로 부동산 매매하는 회사라면 <플레트>회사는 주로 주택 임대 사업에 집중하고 이 회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려는 계획이었다. "비



즈니스-인큐베이션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졌다."고 세르게이는 덧붙였다. 그리고 <부동산 운영>회사의 설립자로서 그는 충분히 회사에서 수입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을 편히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세 설립자 중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수입은 안정적이다. 아내의 현재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했다고 한다.

세르게이는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항상 어머니 말을 따르라', '엄마를 존경해라' 라는 말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세르게이가 말했다. 때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두 아들의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사실 세르게이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지식인으로서 아는 것도 많고 그의 생각도 흥미로웠다. 주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냥과 낚시에 대한 그의 애정은 대단하다. 그리고 세상 사는 지혜와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늘 성장을 꿈꾸며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동 철도 수송량

5월부터 7월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 철도의 승객 수송량이 기록적이었다. 어린 철도원들은 3개월 동안 짧은 노선의 철도를 운영하며 1만500명(아동 3천200명, 성인 7천300명)의 승객들을 수송했다. 이는 2019년 유사시기보다 2배나 많은 수송량이며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동 철도를 운행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한 달 동안에만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송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동 철도 67회 체험학습 시기는 5월 9일에 시작되었는데 9월까지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철도 직업을 습득하고 TU-7과 TU-10 철도버스의 지역 운행에 대한 지도도 받을 예정이다.

아동 철도 체험학습 활동은 소비자보호감독청의 전면적 방역지침 권고에 따라 조정되었다.

### Детск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тановила рекорд по перевозкам

В мае-июле детск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тановила рекорд по перевозкам. Юны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перевезли более 10,5 тысячи пассажиров за три месяца работы малой магистрали (детей — 3,2 тыс., взрослых 7,3 тыс.). Это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9 года (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в 2020 году не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из-за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Только в июне 2021 года было перевезено бо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помним, 67-й учебно-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й сезон на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ся 9 мая. До сентября более 150 ребят будут осваивать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профессии, а также получать навыки управления локомотивами TU-7 и TU-10. Работа дет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организована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и рекомендаци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ДВЖД.

### 사할린 수상 축제 개최

"솔네츠니" 해변에서 수상 축제가 열렸다. 수상 축제는 부메랑 클럽이 사할린주 유·청소년 관광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코르사코브 구역 행정부와 사할린주 관광부의 지원 아래 개최되었다.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은 러시아 연방 비상대책부 사할린주 총관리국의 국립 소형 선박 감독센터가 안전을 담당했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카약, 섭보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등 소형 선박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물가로 나가기에 앞서 항상 구조대들이 참가자들의 안전과 안전장비 착용에 따른 설명을 했다. 교관들은 카약, 섭보드의 기초적 이용법을 몸소 보여주며, 뜻으로 바람을 이용해보고, 모터보트를 운전해 보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보트를 타고 잠시 호수를 둘러보러 나가 시원한 바람도 즐길 수 있었고, 몇몇 사할린 주민들은 수상 체험에 관광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서 부메랑 클럽 수업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메랑 클럽은 1년에 걸친 향토 관광 클럽에서 배울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된다. 9월부터는 연령별 (7세부터 12세까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강습하는데 강습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에 전화8-924-186-86-61(담당자 크세니아)로 할 수 있다고 부메랑 클럽 측이 전했다.

### В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про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На пляже "Солнечный" состоялся в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естиваль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лубом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Центром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обеспечивал центр ГИМС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на различных маломерных судах: каяках и сап-бордах, моторной

лодке и парусной яхте. Выходу на воду всегда предшествовал инструктаж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экипировка участников спасательными жилетами по размеру. Инструктора показывали азы управления каяками и сап-бордами и даже давали попробовать ловить ветер парусами и управлять яхтой. На лодке участники отправлялись в небольшую прогулку по озеру, где 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свежим ветром. У некоторых сахалинцев появилось желание привести детей заниматься в клуб, потому что туристска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в том числе и водные походы.

"Бумеранг" приглашает детей заниматься в клубе туризмом и краеведением в течение года.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С сентября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группы для двух возрастов —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 7 лет и с 12 лет. Для записи на занятия можно звонить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по телефону 8924-186-86-61 (Ксе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луба "Бумеранг".

### 유즈노사할린스크, '물고기 섬' 축제 준비 중

올해 '물고기 섬' 축제가 일곱 번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대규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명 요리사와 조리사들의 활동교실, 경연대회가 열린다.

'물고기 섬' 축제의 목적은 전과 같이 미식관광 개발, 요리 제공 및 서비스 문화 개선, 지역 생산식품을 대내외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데 있다.

전례대로 '물고기 섬' 축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의 날 기념에 맞추어 개최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카페와 레스토랑의 요리사들은 7월 26일까지 특별 미식 마라톤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반 음식점에서 <바다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축제 요리가 제공된다.

요리사들에게는 식객들에게 새로운 요리로 감동을 주는 게 과제로서 이 요리들은 연어류, 오징어, 가자미를 이용해 전통적인 또는 독창적 조리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8면에 계속)

### 홈스크에서 첫 '빤세'축제 개최

지난 24일(토) 홈스크에서 <오스트로와(섬들)>연방청년포럼의 일환으로 '빤세(왕만두)'축제가 처음 열렸다. 이에 홈스크시 청년들과 모스크바, 사마라,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의 여러 도시의 대표들,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홈스크 한인회와 주한인청년회가 주최했다.



사할린을 비롯해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많은 '빤세'는 바로 홈스크에서 1980년대에 사할린한인들이 '출시'했다는 얘기도 있다. 왕만두와 비슷한 '빤세'에 들어가는 속 재료는 주로 간 돼지고기와 김치, 또는 간 돼지고기와 양배추를 섞고, 빤세 피는 발효시킨 반죽으로 사용한다.



주최 측은 미리 준비해둔 반죽 25 킬로그램과 속 (날씨가 더워서 속은 미리 구워 둠) 50 킬로그램을 준비하고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원인 배영희 요리교실 진행자의 설명을 듣고 참가자들이 '빤세'를 빚어 찜통에 올렸다.

배영희 진행자는 "우선 포럼 참가자들에게 우리 한민족 문화를 소개합니다. 우리 한인들은 수로 보아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민족 중 두 번째로 많은 민족입니다. 바로 요리 활동교실을 통해 민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고, 친해지게 만들어 민간 외교를 통한 그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빤세에 대한 활동교실은 극동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빤세'를 찌는 동안 한인청년회 회원들은 한글 쓰기과 한민족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투호를 진행했다. 즐거운 시간은 정말 인기가 많았다. 자기가 만든 '빤세'를 처음 먹어본 참가자들은 만족해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모스크바, 사마라 등에서 온 전문가들은 이날 마련한 한민족 문화에 대한 소개 자료를 남김없이 가져가고, 한민족 문화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홈스크 한인회 부회장이진선 한국어 강사가 덧붙였다.

이날 참가자들에게 북 공연을 선사한 코르사코브의 <미니말> 한민족 타악기 청소년팀의 공연도 큰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본사기자)

### 빅코브, 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

지난 17일(토) 1세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돌린스크 구역 빅코브 마을에서 펼쳐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한국 보건부,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사할린주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빅코브 마을에는 한인 1세 9명이 거주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잘 실시되도록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한인청년회 이 세르게이 회장을 비롯한 의사와 자원봉사자 등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날 빅코브 마을 클럽(회관)에서 1세 분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호목(76), 전미자(80), 김무광(77), 로인순(76) 어르신들께서는 이날 공명순 심장병 전문의 겸 내과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고, 필요로 하는 약품도 받았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배영희 임원은 이들을 위해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흥미로운 혈관계 순환을 돕는 운동 기술에 관심을 갖고, 파라핀 손치료도 잘 하였다. 강팔용 동포가수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 노래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또한 주최 측에서는 이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다. 빅코브 마을에 제대로 된 식당이 없어서 모든 음식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련해 갔다.

클럽에 모인 어르신들은 이날 옛이야기도 나누고 현재 마을에 지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빅코브 마을은 전에 큰 탄광이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고 모든 주민 가족사는 탄광 또는 탄부와 관련돼 있다. 언젠가 이 큰 마을에는 현재 5천 명이 채 되지 않은 주민이 살고 있고, 한인 수도 정확치 않지만 100-200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취직도 어려워니 많은 사람들이 교대업무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에야 빅코브에 오는 사람도 있다.

청년한인회 이 세르게이 회장과 오 블라디미르, 김 알렉산드르 임원들은 의사를 보조하고 선물(마스크, 코로나 19 방역 용품, 한국산 쌀(1포대 -10 킬로그램) 등)을 나누기도 했다.

공명순 의사는 오 블라디미르 청년회 회원과 함께 이날 회관을 찾아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의약품과 선물을 나누었다.

한편 올해 6월 말에 1세 동포들을 위해 시작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는 31일(토) 돌린스크에서 이 프로그램이 펼쳐질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배순신)

### 나의 일생의 심, 사할린 (어머님의 추억)

#### (전호의 계속) 저의 첫 번째 염원

한 동네에서 살던 러시아 친구들이 내가1학년 학교에 입학 하려 할 때에 모두가 저에게 제 11호 학교에 입학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까지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글자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여 러시아 학교에 입학하려고 제 11호 학교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학교가 있으니 거기에 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염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 9호 조선학교 1학년생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은 김옥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4학년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주 아프셔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고 아버지는 교통운수기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그 후 돈벌이가 없어서 아버지는 먼 산에서 벌목공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는 부모님의 돌봄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할머니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우글레고르스크시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조선촌에는 아버지의 형제와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촌 언니와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조선촌이 있던 곳에는 지금도 버스 정류장 이름을 '꼬레이스끼이' 라고 합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 친척들은 모두 큰집에서 모였습니다. 음력설을 기다리며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말에 학교의 새해 율까 주위에서 원형춤기, 추위 할아버지와 눈아가씨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아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음력설이 시작되기 전에 한두 달 동안 또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설 아침부터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이 어른신 댁에 찾아 가서 축하드리고 세배 인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세배를 받으신 어른신들은 우리에게 과자를 주셨는데 아이들은 과자를 받으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했던 일들 중에는 방과 후 첫 번째 일로 밖에서 공동 수도물을 양동이에 받아서 물통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도물 앞에 줄을 서서 물을 받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물통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멜대에 양동이를 걸고 사계절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두 번째 일은 부모님께서 직장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난로에서 재를 꺼내고, 석탄을 가져오고 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 저의 두 번째 염원

어머니는 자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들은 많이 노력했지만 그 당시 필요한 약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꿈은 의사가 되어 엄마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오랜 병석에 누워계시던 어머니는 36 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4살, 11살, 8살이었던 우리 3형제는 어머니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의 지원과 할머니의 돌봄 덕분에 우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으로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학교에 갔는지, 숙제를 했는지, 독에 물을 채웠는지, 석탄을 가져왔는지, 늦은 밤에 집에 있는지, 검은 빵을 샀는지, 확인하시며 할머니는 손자 집을 방문하시어 우리 형제들을 챙기셨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자주 10전짜리 검은 빵을 사서, 빵 위에 식용유를 바르고, 그 위에 설탕을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음식이 많았지만 그 시절에는 가장 맛있는 진미였습니다!

매년 8월 15일에는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조선 해방의 날을 명절로 기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이 명절을 성대히 맞이했습니다.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경주로서 공을 가지고 달리기, 다리를 묶고 달리기, 아이를 등에 업고 달리기, 병 안에 작은 낚싯대를 넣고 병 들고 달리기, 100미터 경기에서 50 미터 달아가서 봉투를 찾아 안에 들어 있는 실을 바늘에 끼우고 3센티 천 길기, 그리고 남은 50 미터를 달려가기였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은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민족 씨름이 있었습니다. 씨름의 우승자는 상으로 송아지를 받았는데 송아지는 울타리 옆에서 풀을 먹으며 우승자가 데리고 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글레고르스크시에는 다민족의 사람들이 이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타타르 민족도 참여하여 경기장에 <사람들의 친선>이라는 표어가 걸린 구석에서 전통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성인들은 그날 모두가 무료로 식사했습니다. 그 당시 소련에서 교육과 보건체계는 무료였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 탁구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탁구채와 탁구대를 구입했습니다. 5학년 때 박태일 (사망) 체육 선생님께서 탁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이 탁구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도시 탁구 대회에 참가하여 2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나면 여전히 탁구를 치곤합니다.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저는 조선 7년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존함은 우정구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현재 그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7학년을 졸업한 후 할머니는 돈벌이 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떠나와 함께 취직하려고 아텔리에(양장점)와 제지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14살의 아이들은 너무 어리다며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7학년을 마치고 8학년에서 계속 공부하려고 우다르노이촌에 있는 조선 중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는 탄광이 있어서 조선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 니나, 파나, 울라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8학년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우다르노이에 있는 기숙사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니나가 저녁에 와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범전문학교에 공부하러 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니나의 친척인 문자는 이미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집에 가서 의논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만큼 집에서 청소, 빨래, 요리,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은 법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저는 이를 동안 밥을 굶었는데 아버지는 밥을 굶는 행동을 하는 나를 걱정하시고 큰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촌 언니는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겠다.' 는 것을 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반대하셨지만 사촌 언니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족회의는 내가 공부하러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호 계속)

문산에서 어머니의 추억 이야기를 듣고 딸이 잔나 적었음 2021년 7월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из России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обязателен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и, что прибывающие из России и еще трех других стран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обязательный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даже, если они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ы.

С добавлением четырех стран прибывающие из ранее внесенных в список 26 стран не смогут избежать обязательного 14-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ему пересмотру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четы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траны,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и Узбекистан, страдают от растущего числа более передаваемого варианта Дельта и поэтому прибывающие из них не смогут избежать карантина.

За неделю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бавилось 719 новых случаев варианта Дельта и их число составило 71,8 процента из 1 001 новых случаев четырех самых заразных вариантов вируса.

С мая южно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овакцинированы в стране,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обязательной 14-дневной изоляции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из-за рубежа. Но от них все еще требуется проходить тесты на COVID-19.

ИА РУСКОР

## Глав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пройдет без митинг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еула решило запретить все митинги, планировавшиеся по случаю предстоящего 15 августа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из опасений быстр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власти города уведоми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 том, что им не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митинги с 14 по 16 августа. Некоторые группы ранее уже уведомили полицию о проведении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этот период.

«Мног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митинги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Сеула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что вызывае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озможны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через большие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говорится в извещении.

Группам, которые нарушат запрет, грозит штраф, добавили в мэрии, призвав к строгому исполнению антивирус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А РУСКОР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ОстроVa" научили делать пянсе

Корейские пирожки пянсе научились делать участники перв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в Холмске "ОстроVa". Он собрал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 жителей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Мастер-класс пров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янсе понадобилось 25 килограммов теста и 50 килограммов начинки.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ы знакомим наших гостей,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Мы являемся второй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диаспорой, проживающ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считаю, что именно кулинар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зволяют узнать 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больше, подружи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расширяют народную дипломатию, границы. К тому же таки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н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ы первые, — отметила ведущая кулинарного мастер-класса Анжела П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янсе отправились в пароварки, форумчан погрузили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Они смогли постичь искусство каллиграфии, примерить на себя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научиться игре на барабанах.

— Я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ю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Главное, что это целая культура. Прикольно, что мы оказались на перв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никальность рецепт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тесто не липнет. Я проверил. У меня, конечно, получился целый вареник, но меня поддержали, помогли. Жду, когда приготовится. Буду пробовать,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форума в Холмске "ОстроVa" Владислав Швец.

Холм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впервые принял



мероприят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Эксперты из Москвы, Екатеринбурга, Самары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могли молодеж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разрабатывать проекты по пя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туризм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социально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личностный рост.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Холмска, сообщает оргкомитет форума.

## Россияне входят в шестёрку самых частых визитёров страны

Число краткосроч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Южной Корее упало до самого низкого за пять лет уровн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Это касается иностранцев, включа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разрешениями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не более 90 дней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деловыми или иными целями.

По данным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Кореи, число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итёров составило 416 817 в ма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417 883 месяцем ранее и 456 157 годом ранее. Цифра за май 2021 года оказалась самой низкой со времени вспышки COVID-19 в январе 2020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екордно высокой цифрой в 792 753 в декабре 2019 года она упала на 47,4 процента.

Из 1,98 миллиона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с краткосрочными

или долгосрочными визами в мае, граждане Китая составляли самую большую долю в количестве 861 526 человек.

Далее по многочисленности следуют вьетнамцы и тайцы, состави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209 121 и 175 547 человек. На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ышли 148 211 граждан США, включая военный контингент в количестве 28 500 человек. В стране также находились 64 656 граждан Узбекистана, 48 681 России, 48 162 Филиппин, 40 062 Монголии, 37 217 Непала, 34 899 Индонезии, 30 104 Казахстана, 27 764 Японии, 25 302 Мьянмы, 21 792 Канады, 7 554 Австралии и 5 662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данные также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обучающих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 год в мае выросло на 3,4 процента до 158 752 человек.

ИА РУСКОР

## Бизнес, процветающий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Экспорт в сектор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л US\$103,04 миллиард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и вырос на 21,5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годом ранее,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В частности, экспорт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оставил US\$57,51 миллиарда, на 21,3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ифра составляла US\$47,02 миллиарда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2019 года, US\$47,43 миллиарда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2020 года и US\$52,82 миллиарда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2020 года.

Экспорт дисплеев вырос на 38 процентов до US\$10,78 миллиарда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а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на 33,3 процента до US\$6,47 миллиарда в связи с растущим спросом на передовые смартфоны. Экспорт компьютеров увеличился на 6,2 процента до US\$7,31 миллиарда.

Экспорт в Китай и Гонконг составил US\$48,67 миллиарда,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8,8 процента, а отправки во Вьетнам, США,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и Японию выросл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20,2, 20,1, 28 и 3,5 процента.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экспорт в сектор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ырос на 29,1 процента до US\$19,3 миллиарда, повышаясь 13-й месяц подряд. Экспорт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второй месяц подряд превышает отметку в US\$10 миллиардов.

ИА РУСКОР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Юг и Север восстановили работу линий связи через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Две Кореи возобновили прямую линию связи через границу.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Су Хён, «горячая линия» возобновила работу 27 июля в 10 часов утра. Она не действовала на протяжении 13 месяце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хеньян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отключил связь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отправки на Север через границу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листовок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Тогда Пхеньян обвинил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в том, что он не препятствует деятельност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ил.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линий связи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обмена письмами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и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также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двигаясь вперёд в развити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зднее факт возобновления работы прямой линии связи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подтверд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где сообщили,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оронных ведомств Юга и Севера возобновляют регулярный обмен телефонными звонками. Доступны как телефонная, так и факсимильная связь. Начиная с полудня 27 июля, стороны будут обмениваться телефонными звонками по линиям связи на западном и восточном участках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дважды в день - в 9:00 и 16:00,-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обороны. Как показала проверка, линия связи на западном участке работает нормально, но некоторые техн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на восточном участ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линии, - доба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обороны РК. Как сообщало в тот же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и сыграет положительную роль в улучш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еперь вся корейская нация желает, чтобы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преодолели неудачи и застой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 Почти 9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тарше 30 лет полностью привиты от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6 июля, 104.861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старше 30 лет, или 89,7%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анн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полностью привиты. В апреле и ма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рививали первой дозой вакцины AstraZeneca, 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з-за осложнений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её только для пациентов старше 50 лет, для второй дозы прививок использована вакцина Pfizer. Минобороны планирует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завершить вакцинацию все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личеством 550 тыс. человек.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выявлен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491 инфицированный коронавирусом.

## Фестиваль грязи в Порёне вошёл в тройку крупнейших фестивалей Азии

Фестиваль морской грязи,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ит в Порён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признан Азиат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ей мероприятий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трёх основных фестивалей в Аз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7 ию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рёна. В первую тройку вошли также ежегодный Харб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льда и снега и в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новому году в Таиланде. Эти три фестиваля отобраны среди 21 претендента в ходе онлайн-опроса,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00 экспертов. Фестиваль грязи в Порёне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в июле-августе, начиная с 1998 года. Порёнская грязь отличается богатым содержанием минеральных веществ и известна способностью предотвращать старение кожи.

## Раздача чрезвычайной помощи жителям РК ожидается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треми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чрезвычайную помощь на борьбу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пандемии COVID-19 большинству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Однако сроки выплат будут зависеть от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26 ию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стимулирующие чек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11 трлн вон (9,5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лучат наименее обеспеченные жители страны. По подсчёт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250 тыс. вон (217 долларов) на человека получат 20 млн 230 тыс. домохозяйств. 5 трлн 300 млрд вон (4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выделено на поддержку мел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антивирус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м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начать выплаты 17 август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зме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щерба сумма помощи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до 20 млн вон (17.350 долларов). Между тем, кэшбэк от оплат банковскими картами с целью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спрос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е три месяца, как планировалось раньше, а два. Расходы на покрытие кэшбэка были сокращены с 1 трлн 100 млрд вон (950 млн долларов) до 700 млрд вон (61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бы оказ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л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RKI)

## Госслужба становится трендом для ищущих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Число молод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готовящихся к экзаменам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и получ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лицензий, оказалось рекордно высоким в мае, поскольку рынок труда оставался нестабильным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статистики Кореи, 859 000 человек или 19,1 процента от 4,49 миллиона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15-29 лет готовились к экзаменам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в мае, на 55 000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Это стало самым большим числом молодых людей с начала ведения такой статистики в 2006 году.

Из них 32,2 процента готовились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экзаменам, чтобы ст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лужащими низшего ранга, на 4,1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10,5 процента готовились к экзаменам на более вы-

сок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осты, на 2,4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22,2 процента готовились к экзаменам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ях.

В Южной Кореи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едпочитают должност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в связи с более высокой защищённостью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фоне затянувшего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пада.

В агентстве сказали, что 37 процентов принятых на работу получают от 1,5 миллиона вон (US\$1 305)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работы, а 23,2 процента получают от 2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ае число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достигло 3,91 миллиона, на 138 000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исло безработн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сократилось на 24 000 до 402 000.

ИА РУСКОР

## ЮНЕСКО: Япония не почтила память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Комитет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призвал Японию сдержать своё обещание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посвящённом объектам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которые внесены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заседания комитет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22 июля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та резолюция, в которой выражено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невыполнения Токио своего обещан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2015 году 23 объекта эпохи Мэйдзи были внесены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Токио заявил, что создас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в котором будут собраны экспонаты о жертвах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отив их вол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работать в суровых условиях на некоторых объектах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ежду тем,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фактически освещаются лишь достижения япо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но не упоминаются страдания жертв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ах, в том числе, на печально известном острове Хасима, где многие корейцы работали на угольных шахт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Япония не выполнила рекомендации ЮНЕСКО, и это подтвердила комиссия Комитета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сетившая Японию,- говорится в резолюции.

KBS World

## Около 70% пожи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до 73 лет

Около 70% пожи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хотели бы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до 73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27 июл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показали, что 68,1% из 14 млн 76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55 до 79 хотят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Это на 0,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жилые жители страны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в среднем до 73 лет.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не измен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58,7% респондентов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на жизнь, 33,2% испытывают радость от работы, пока позволяет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мая этого года, н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55 до 79 лет приходилось 32,8%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РК борется с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хронически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ью и быстрым стар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2025 году РК станет сверхстарым обществом, в котором доля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достигнет 20%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2017 году, когда доля таких людей превысила 14% населения, РК стала пожилым обществом. Обсуждается вопрос о повыше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до 65 лет в связи с растущей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значительного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KBS World

## Песня Butter группы BTS вернулась на вершину Billboard

Песн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упергруппы BTS девят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занимают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синглов Billboard Hot 100. Её хит Butter вернулся на вершину чарта. Он находился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семь недель подряд, а затем на неделю уступил его последнему синглу группы Permission to Dance, который на этой неделе опустился на седьмую строчку. Как отметили в Billboard, BTS стала первой группой, которая заменил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одну свою песню другой, а затем вернула предыдущую песню обратно. Группе BTS потребовалось 10 месяцев и 2 недели, чтобы пять хитов - Dynamite, Life Goes On, Butter, Permission to Dance и ремикс песн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сполнителя Джейсона Деруло и новозеландского продюсера Jawsн 685 под названием Savage Love - заняли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они уступают лишь Майклу Джексону, который сделал это за 9 месяцев и 2 недели в 1987-88 годах.

KBS World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Курильской ЦРБ

26 - 27 июл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Рабочая поездка началась с посещения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острова Итуруп.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опровожд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и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Курильска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оценил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ознакомился с оснащением учреждения.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смотрел кабинеты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вакцинации и рентген-кабинет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 также пообщался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ЦРБ.

По словам врачей, сейчас больница оснащена рентгеновским аппаратом, аппаратом УЗИ, флюорографом и аналоговым маммографом. Однако для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учреждению необходимы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цифровой маммограф и прибор для иммуноферментного анализа.

–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ейшего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 наша важнейшая задача. Жител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рять здоровье, не выезжая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Хочу сказать вам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что в такое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помогаете людям. У вас район хоть и далёкий, но красиво здесь, – обратился к врачам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 Вы будете обеспечены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у вас и профилактика на месте, и реабилитация. Что касается оборудования – думаю, мы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решим, но главное – чтобы люди не болели и вам было удобно и комфортно. Спасибо вам, дорогие врачи.

К решению вопроса обеспечения медучреждения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дключится Минздрав РФ.

Отметим, здание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построили в 2010 году. Его общая площадь – более 2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оходить стационарное лечение здесь могут до 50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сещают больницу до 100 пациентов в смену.

В составе ЦРБ – отделения терапии, хирургии,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ии, акушерства и гинекологии, наркологии, офтальмологии, неврологии и стоматологии.

С 1 июл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десь началась углубленна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курильчан, переболевших COVID-19. В планах – обследовать более 180 человек.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установили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 Четырехлетнего пациента реанимацио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отправят на лечение в Москву

Предло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властей оказать малышу помощь в столице поддерж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Михаил Мурашко по итогам визита в островное медучреждение.

Маленький Витя появился на свет раньше положенного срока. Беременность 28-летней матери на момент родов составляла 26 недель. Экстренное кесарево сечени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связи с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й отслойкой нормально расположенной плаценты. Масса тела мальчика при рождении составляла 860 граммов, рост – 35 сантиметров. С рождения состояние ребенка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тяжелое за счет дыхательных расстройств, которые проявились на фоне пневмонии.

В связи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ро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в жестких режимах в возрасте 12 суток маленький пациент был переведен из областного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реанима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мимо патологий, связанных с дыханием, у мальчика диагностирован детский церебральный паралич. Ребенок страдает тяжелой формой аллергии и непрерывно рецидивирующим дерматитом.

После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силиума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и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еревести маленького сахалинца в Москву.

– Мы подключим специалист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Это особый случай. Обязательно надо помочь. Мы провели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нсилиумов по лечению пациентов и во взрослых отделениях реанимации, и в детских. Федеральные клиники должны подключиться к ведению пациентов. Сегодня также осмотрели пациентов взрослого отделения нейро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где требуются консультации института Бурденко. Это обычная практика при таких выездах. Она позволяет нам увидеть узкие места, чтобы вот именно э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больниц – было более быстрым, эффективным. Главное, чтобы пациент получил необходимый объем помощи, – подчеркнул Михаил Мурашко.

Одна из детских федеральных клиник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уже подтвердила готовность принять тяжело больного сахалинца. Там мальчику прове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назначат курс реабилитации.

## Начала работу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Исполнение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компании стало одной из тем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а Мишустин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езентация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ошла п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Крайне важно развивать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чтобы его жители могли свобод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внутри макрорегиона, летать напрямую, без стыковок, а не через круп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узлы, – отметил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 Созда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позволит открыть новые маршруты, получить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билетов, обновлять воздушный флот. Все это делается в интерес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каза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новленная маршрутная сеть авиакомпании составит 535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маршрутов, в том числе 100 маршрутов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и 435 – местных.

В ию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о распоряжение о субсидирова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На льготные пассажирские авиаперевозки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ДФО) в 2021 году направят 1,58 млрд рублей.

Средства, выделенные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позволят снизить цены на билеты по 20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их числе – Хабаровск – Анадырь,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ладивосток – Чита,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 Благовещенск.

– Мы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что цены на билеты будут от 2200 рублей, а максимум – 10900 рублей. Держите? – спросил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у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Константина Сухоробрника.

Глава авиакомпании заверил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то решение по ценам на авиабилеты соблюдается и сообщил, что рейсы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опросил Константина Сухоробрника налад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с пассажирами. «Мы должны точно знать: никто не купит билеты дороже, и этим не воспользуются посредники»,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расчетам, сниженным тарифом за год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лее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сего же благодаря господдержке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не менее 1780 рейсов по социальным тарифам на эти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маршрутах.

С 26 июля запущены рейсы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по первым маршрутам и тарифам,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м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Теперь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жно без пересадки улететь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еще три новых рейса свяжут Шахтерск, Ноглики и Оху с Хабаровском.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а к выполнению все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х маршру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твержде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начиная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августа», – сказал Константин Сухоробрник.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оздана для повыше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всех регионов ДФО. Она должна обеспечить авиасообщением сотн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Как пояснили в руководстве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овед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сформировано расписание.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привлечены партнеры – региональные авиакомпании, входящие в Группу «Аврора», к выполнению этих новы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рейсов.

Обсуждалась разработка стратегии авиакомпании и планы по обновлению и увеличению фло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компании за счет приобретения 45 новы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до 2025 года.

–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ка 45 самолето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для компаний. Всё это расписано по годам. Для вновь создаваем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важна прежде всего социальн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Её задача повыс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и перевозить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редостав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авиационного сообщения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 отметил вице-премьер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Ранее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поручил до сентября 2021 года завершить все корпоративные процедуры по создан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вхождение всех 11 субъектов ДФО в состав акционеров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и получение «Авророй» 25% пакета акций в пя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авиакомпаниях: КГУП «Хабаровские авиалинии», 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Якутия», 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Полярные авиалинии», ГП ЧАО «ЧукотАВИА» и АО «Камчатское авиапредприятие». В декабре 2019 год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оручил вне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о создании авиакомпании для перевозок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скольку в эт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налаженное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из-за больших расстояний, слож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и нехватк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Еди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оздана на базе 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высоко оценил темп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прибы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Глава Минстроя России посетил ряд строительных объектов, а также провел расширенное совещан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министр архитектуры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Ракитский. В режиме ВКС к встреч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Также в ходе диалога свои вопросы и предложения смогли озвучить руковод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Ирек Файзулли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а из двух регионов в стране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по расселению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го, по его мнению,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им темп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островах.

Ежегодн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вводить окол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используют все возможные механизмы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объемов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 с финансовым институтом развития ДОМ.РФ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Более 800 сахалинцев смогут улучшить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 врачи, учителя и други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С группой компаний ПИК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комплексной застройки площадью более 8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Увеличению объемов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ует система ипотечного кредитования. К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более 1200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В цел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ыполняет план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лья. Здесь основными стимулирующими мерами являются инструменты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меню. Регион привлекает крупных федеральных застройщиков, что также позволит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ввода жиль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граждан. Накануне мы заложили камень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проекта комплексной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Ую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жильем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роект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с помощью механиз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лигаций», – отметил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Еще один фактор развития рынка нового жилья – внедрение промышленных метод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домокомплектов дл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анелей дл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домостроения в целях выполнения показателей по вводу жил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ФО.

## На портале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явится новый раздел о загрязнении водных объектов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итогам поездки в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Здесь, возле склада Солнцевского угольного разреза, в долину реки Желтая сошла порода. Тепер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сообщать о люб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нарушениях с помощью цифрового ресурса и оперативно получа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 Сахалинская природа – это наше богатство. И, безусловно, мы должны заботливо относиться к озерам, рекам, лесам, полям.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бережн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для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Чистые острова – один из наших приоритетов. Мы всегда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имся к информ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экологическими нарушениями, оперативно на них реагируем. И должны продолжать вместе бороться за сохранение нашей уникальной природы,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тобы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здать на базе портал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специальный раздел, куда можно направлять информацию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ах, в том числе на водных объектах.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рассказать о нарушениях, при желании возможно прикрепить фото.

По такому же принцип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вели генеральную уборку и ликвидировали свыше 2 тысяч незаконных свалок. К поиску активно подключилис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 на портал жители присылали фото скопления мусора, а профи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оперативно вывозили свалки.

В этом году с помощью цифрового ресурса проводится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островных дорогах. Губернатор поблагодарил волонтеров и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жителей за помощь в этой работе и призвал активн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 портал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60 разделов, касающихся разных сфер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редний срок получения ответа – 10 дней.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электронного ресурса удалось решить свыше 18,5 тысяч пробле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 외국인 대상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접종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첫 2,000 회분이 사할린주에 도착했다.

해당 백신은 사할린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COVID-19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외교부의 도움으로 외국 영사관과 긴밀한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지역 보건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만9천 명이다.

가까운 시일 내로 외국인 백신 접종이 유즈노사할린스크 2호 보건소(폴리클리닉)에서 시작되며 접종 비용은 1200 루블이다.

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백신 접종 예약은 긴급 전화 1300(내선 10)으로 전화.

2. 다음 주소의 백신 접종소로 방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프로스펙트 미라 85 (2호 보건소, 본관 뒤편 별도의 입구. 13호실)

3. 백신 접종에 대한 자발적 약관동의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약정서(2부), 설문지 작성 및 서명

4. 의료 서비스 비용 지불(현금 지불 불가).

5.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접종.

6.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백신 접종은 2호 보건소에서 월요일 - 토요일(10:00-17:00까지)에 접종하며

방문 시 여권, 개인 의료보험 번호(소지한 경우) 및 노동 허가증, 영주권, 임시 거주 허가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고 지역 보건부가 전했다.

# 재외동포재단, CIS지역 한국어교사 온라인 연수 개최

## - 8월 27일까지 5주간 진행, 고려인 한국어교사 역량 강화 목적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고려인 한국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부터 5주간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3개국 36명의 한글학교 교사 및 현지 학교 한국어 교사가 참가한다. 또한 정규 연수생 외에 청강생 28명을 선발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26일 온라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연수를 시작했으며, 5주 동안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수업, 비대면 한국어

사·문화 특강, 교수법 특강 및 교육 실습 등에 참여한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차세대 고려인 동포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는 한국어 교사로서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정연수'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연수를 주관한다.

# 프로젝트 холмчан получают поддержку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рошёл в Холмске впервые. Он собрал жителей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евель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ов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Казани и Ярославля. Всего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форумчане разрабатывали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лучше. Начать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ложили с малого: убрать мусор на пляжах, смастерить и покрасить лавочки, сделать лежаки, обустроить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нарисовать граффити.

— Мы задумывали этот форум таким, чтобы после него остался не просто след, а была целая цепочка событий. Хотим сподвигнуть людей, живущих в Холмске, активнее его развивать.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каждый — участник форума или житель понял, что изменения возможны, и они в руках самих людей, — сказал мэр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В завершающий день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проекты активистам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деями молодежи приех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сле форума «ОстроVa»,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 молодежи было получено много предложений. Прозвучала просьба провести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первым откликнулся на запрос. Кроме того, стало понятно, что островитяне при помощи грантовых конкурсов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стных инициатив.

— Сегодня я увидел практически готовые к реализации грантовые продукты. Попрошу авторов предложен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доработать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Организуем вам встречу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ассоциации туроператоров. Попробуем поработа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 треку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четко замечено, что не всегда власти попадают в запросы от жителей. Поэтом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щена программ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где по условиям каждая инициатива оценивается людьми и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реализуется.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ах, созданных вами за это время, то получилось здорово. Знаю, чт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выстраиваются в очередь, чтобы занять лежаки. Поэтому рад сообщить,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величены квоты на федеральные гранты, сумма составит полтора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оэтому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Давайте доведем ваши проекты до практического применения, —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На форуме одни участники разрабатывали проект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ругие объединялись в группы. Участники трека «Туризм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карту-схему «Сокровища Холмска».

— Мы не только слушали лекции, но и выполнял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дания. Выходили на улицы, общались с горожанами, спрашивали об интересных местах, ко-

торые есть в городе, и что 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туристы или сами жител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Оказалось, что карты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Холмска нет. Мы предлагаем выпустить ее как в электронном, так и в бумажном виде или разместить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тендах, — рассказали форумчане.

Всего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редложили 15 проектов. Они с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их на грантовом конкурс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и получить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о полутора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почти 1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дороги

С помощью бюджетных креди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новых микрорайон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 этом договорились на встреч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оссии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разработан механизм, чтобы регионы могли привлекать заемные средства по льготной ставке не выше 3-4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пала в число пилотных субъектов, которым будут выделены эти средства,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ут строить два больших микрорайона — на 300 и на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ервый из них — «Уюн» — уже торжественно заложили с участием минис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Ирека Файзуллина.

— С помощью бюджетных кредитов планируем проложить дороги, провести электричество, воду и все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обустрои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новых микрорайонах можно без большой нагрузки на бюджет.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 своевременное принятое решени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тем встречи также стало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Все, что касается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людей, для нас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с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В этом году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шли 109 тысяч человек. Мы открыли новые медицинские программы углубленных медосмотров. В зон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 сахалинцы в возрасте 65+ из группы риска. Необходимо диагностировать нарушения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и не запустить опас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могают обеспечивать передвижные комплекс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40 автомобилей с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которые ездят в отдаленные села. Регион получил 11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перемещ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Ожидается еще 17 автомобилей скорой помощи и 3 передвижных комплекс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우리말로 깨닫다]

# 몸살이 나다

갑자기 몸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궁금해졌습니다. 몸에 살이 붙어서 생긴 말이니 살의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전부터 저는 몸살은 몸에 살을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을 맞다는 말은 주로 무속 등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살을 맞아서 죽기도 하니 무서운 말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살의 어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살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살을 맞다는 의미에서 몸살의 뜻을 우선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살을 맞는다고 할 때 살은 사전에서는 한자로 나옵니다. 살(煞)이라는 한자의 의미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흉신(凶神)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흉신은 흉물스러운 좋지 않는 귀신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보면 살을 맞다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았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련된 관용어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이 까다'나 '살이 붙다'라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불길한 기운이 들러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살이 뻘치다'나 '살이 서다', '살이 오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살이 가다'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공교롭게 해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살이 세다'는 말은 운수가 나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예로 '결혼한 남자마다 단명을 하니 참으로 살이 센 여자다.'를 들고 있을 정도로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니 살을 맞았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몸살은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살을 앓았다고 표현할 때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몸살의 살이 살을 맞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몸살, 감기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수는 없는 증세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끝은 백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백신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백신 접종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모두 일상의 소중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만,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맞아주겠다는 생각에 주변 병원에 잔여백신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곧바로 연락이 와서 아내와 함께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접종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접종 후에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미리 준비한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접종 부위만 며칠 간 빠근하였는데, 아내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열과 두통, 근육통으로 입맛까지 잃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이를 정도 고생을 하고 나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몸에 잡균이 없으면 백신의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의학적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백신을 맞고 아무 후유증이 없었다고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했더니 후유증은 주로 젊은 사람에게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균이 몸속에 들어와 쌓여 있죠. 독감 주사를 자주 맞는 사람, 예방 주사를 많이 맞은 사람은 어쩌면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지 모릅니다. 어릴 때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아무거나 먹고 힘들게 살았을수록 균에 저항력도 강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오히려 백신에는 적응이 잘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쪽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예방 주사는 사실 좀 아파야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예방이라는 게 아예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약하게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고 몸살을 앓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몸에 균이 들어왔음을 확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백신의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맞은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참 묘한 세상입니다. 백신 하나에도 이렇게 세상이 다 담겨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세상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의 아프지만 강인함을 알 수도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나면, 고열에 오한을 겪고 나면 그만큼 자라납니다. 내 몸속에 있던 나약함도 치유할 겁니다. 몸살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товятся к фестивалю "Остров-рыба"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уже в седьмой раз.

Для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готовят масштабную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ающую в себя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известных шеф-поваров, конкурсы.

Цель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остается прежней — это развити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вышение культуры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подачи блюд, продвижение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региона на внутреннем и внешних рынках. Традиционно "Остров-рыба" приурочен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ладельцы ресторанов и каф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огл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специальном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 марафоне до 26 июля. "Дары морей" — под таким название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фестивальные блюда в заведения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со 2 августа по 29 августа. Шеф-поварам предлагают удивить своих гостей новинками — это должны быть блюда из лосося, кальмара и камбалы,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или авторским рецептам.

### 사할린 '크리스탈' 모집 공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포츠학교 '크리스탈'에서 다음 스포츠 종목에서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피겨 스케이팅 (대상 연령: 여아 6세 - 7세, 남아 6세 -9세)

복싱(대상 연령 10세 이상)

역도 (대상 연령 9세 이상)

훈련은 그룹별 국가 예산으로 진행한다. 스포츠 훈련 과정 등록은 2021년 8월 24일까지 온라인(<https://sport.aqua>)에서 각 종목별( 피겨 스케이팅, 복싱, 역도)로 접수한다.

그룹 등록에 앞서 학생들은 일반 체력 단계에 따른 표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별 선발 일정표는 본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다.

스포츠 훈련과정 등록은 9월 1일까지 이뤄지고 상세한 정보는 '크리스탈' 공식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다.

### Сахалинский "Кристалл"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Кристал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глашает мальчиков и девочек на следующие спортивные отделения:

·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на коньках (возраст для зачисления: девочки 6-7 лет; мальчики от 6 до 9 лет)

· Бокс (возраст для зачисления: с 10 лет)

· Тяжелая атлетика (возраст для зачисления: с 9 лет)

Тренировки проходят в группах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Запись на прохождение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нлайн до 24 августа 2021 года на сайте: <https://sport.aqua>.

Для зачисления в группы ребятам предстоит сдать контрольные нормативы по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е.

Зачисление на прохождение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до 1 сент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сайте "Кристалл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박성 씨 별세

인천으로 영주귀국하여 사시던 박성 씨가 임시 친척 방문으로 사할린에 계시던 중, 지난 2021년 7월 27일, 향년 83세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뜻밖의 비보를 듣고 몹시 애달팜과 슬픔으로 부고를 전합니다. 박성 씨는 2007년 영주귀국 이후부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으로 모든 경로당의 일에 앞장서서 봉사해오신 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젖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인천 사할린 친구들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인천 사할린 경로당 회원 일동

Реклама

#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http://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